

도로변·조림지 덩굴류 확산 골머리

이상기후 영향 급속도 번져 경관 저해·수목 생육 방해 강한 생명력이다 예산부족으로 효과적인 제거 어려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도로변은 물론 조림지에 덩굴류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당국이 제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침과 같은 덩굴류는 번식력이 강해 수목을 감아올라가면서 생육을

방해하는가 하면 무차별 번식하면서 산림경관을 훼손한다. 주요 도로변은 물론 조림지와 도심지에 위치한 도시공원 산책로 주변에서도 칩새콩 등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제주시는 이처럼 주요 도로변과 조림 사업지 내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산림 경관을 저해하고 수목 생장에 지장을 줌에 따라 덩굴류 제거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해 녹근과와 금가로, 애월을 장전-하가 지방도로, 애조로 등 주요 도로변은 물론 부소오름, 골채오름, 상명목장 등 조림 사업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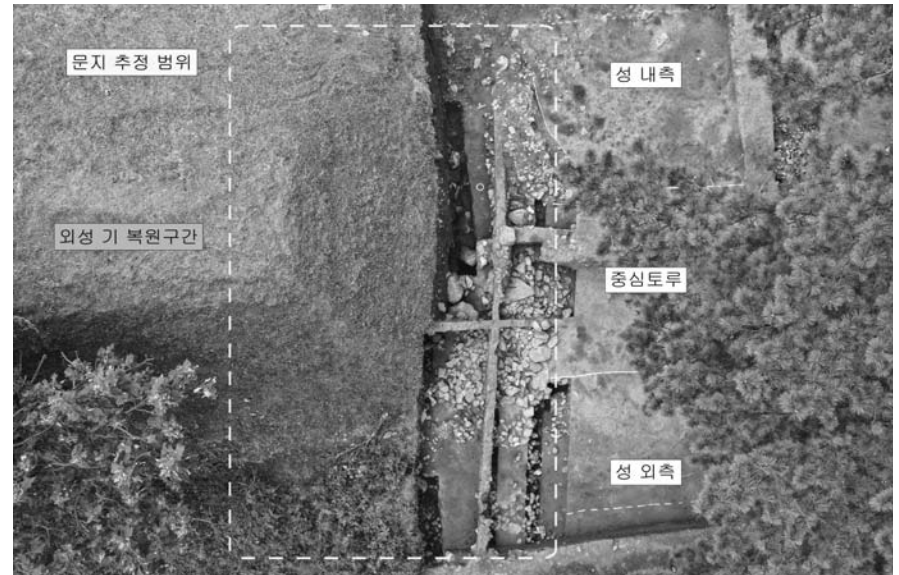
대상으로 덩굴류 집중 제거에 나서고 있다. 올해 덩굴류 제거에는 예산 2억원이 투입돼 190ha 면적에 대한 덩굴류 제거작업 및 풀베기(200ha)를 완료한 상태다. 이어 산림 인접지 3.3ha에 대한 덩굴류 제거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목 생장을 방해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덩굴류는 번식속도가 빠른데다 강한 생명력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덩굴류 제거를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덩굴류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 체계적인 제거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2022년 사업비로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생활권 주변 산림 인접지 400ha에 대한 제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5억여원을 투입 168ha 면적에 걸쳐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작업을 벌인 바 있다. 시 공원녹지과 한정우 과장은 “친환경 방법을 이용한 덩굴류 제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림 경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최근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가 급속도로 번식하며 나무 생장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변경관까지 훼손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아라동 지역에서 확인한 덩굴류의 모습.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 바깥 경계의 외성(토성)에서 동문이 있던 자리인 ‘동문지(東門址)’가 발굴됐다. 사진은 조사대상지의 모습.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향파두리 유적지서 ‘동문지’ 최초 확인

축성 구조·기법 등 연구 발판 오늘 현장서 학술자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 외성 6차 발굴조사 결과, 동문지(東門址, 동문이 있던 자리)를 최초 확인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학술자문회의를 오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향몽유적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외성 6차 발굴조사는 향후 외성(토성) 정비·복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굴조사에는 4억 600만원(국비 2억 8400만원, 도비 1억2200만원)을 투입, (재)제주고고학연구소에 의뢰해 진행(2021년 6월 7일~12월 3일)되고 있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외성 남동쪽 회절 구간으로, 동문지로 불리던 곳이다. 조사 결과, 외성의 기본구조인 중심 토루, 내·외피 토루, 기저부 석렬, 영정주(永定柱) 초석, 와적층(瓦積層) 등의 축성구조와 기법, 규모와 함께 등성시설(登城施設)로 추정되는 곳이 확인됐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외성 남동쪽 회절 구간으로, 동문지로 불리던 곳이다. 조사 결과, 외성의 기본구조인 중심 토루, 내·외피 토루, 기저부 석렬, 영정주(永定柱) 초석, 와적층(瓦積層) 등의 축성구조와 기법, 규모와 함께 등성시설(登城施設)로 추정되는 곳이 확인됐다.

‘도민 로스쿨’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민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이다. 교육은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온

라인 플랫폼(구루미 biz)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수강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수강하고 싶은 도민은 전화(064-710-2275-6)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노트북)·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 내용을 녹음·녹화·유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상민기자

특히, 조사구간 1지점에서 동문지와 관련한 문초석 1매(길이 131cm×폭 78cm×두께 22cm)가 발견됐다. 문초석에는 확쇠와 문기둥 홈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성문 시설과 관련된 기단 및 보도시설 등이 출토되는 등 향파두리성 문지를 최초로 확인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15일 개최되는 학술자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발굴성상을 논의하고, 향후 발굴조사 진행 및 해당 유적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파두리성은 1271년(고려 원종 12) 5월,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이 진도에서의 패배 후 제주로 입도해 구축한 토성(土城)이다. 현재까지 시·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강화도성의 중성(中城)과 동일하게 판축공법으로 축조됐음이 확인됐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배일 속에 가려져 있던 향파두리성의 구조, 성문과 관련된 시설(옹성, 해자, 도로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관련 학술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르기자

“2021 세계유산축전은 온라인 순항 중”

유튜브 중계 등 콘텐츠 호평

지난 1일 개최한 ‘2021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하 세계유산축전)이 고품격 온라인 콘텐츠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세계유산축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축전으로 운영 중이다. 미디어를 통해 제주의 생태 자원을 향유하는 이번 축전은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과 개방성이 대폭 넓어져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이 축전의 콘텐츠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우선 4인 4색 워킹투어가 유튜브 인기 콘텐츠로 급부상했다. 시원의 길, 용암의 길, 동굴의 길, 돌과 새 생명의 길 등 4개 구간을 4인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탐험 큐레이터와 함께 탐방하는 영상 콘텐츠다.

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마을 선홍리, 선홍2리, 덕천리, 월정리, 김녕리, 행원리, 성산리의 소중 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마을 곳곳을 소개하며 걷는 마을 투어 영상 시리즈로, 세계자연유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탐험게임, 공모전 등 시민 참여 이벤트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자연유산 그림 및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2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세계유산축전 관계자는 “세계유산축전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질적 관광 모델, 올해에는 생태적 자원을 미디어와 결합시킨 문화 관광의 모델을 제시하며 발전하고 있다”며 “세계자연유산이 축전을 통해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코로나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액 늘었다

제주시, 정기분 징수액 6.38%↑ 주택 증가·공시가격 상승 효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에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액이 전년 대비 6.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60억원(21만7000건)을 부과해 795억원(19만2000건)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94억원, 주택 101억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은 92.38%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90.38%)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정기분 9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를 적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에도 부과 및 징수액이 2020년(747억

원) 대비 6.38% 증가한 795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신규주택 증가 및 토지,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토지 7.85%, 개별주택 4.11%, 공동주택은 2.55% 각각 상승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 까지 재산세 세수목표(1198억원)의 92%인 1102억원을 징수,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이체자 200명을 추천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이충을 해산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잎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시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검색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 할인 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10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4위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지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역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